

열정과 패기가득찬 차세대 '포장인'



이 기 영 /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4년

(사)한국포장협회가 지난 해 9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12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 결과, 총 61명의 수료자 가운데 건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기영 씨가 91.5점으로 수료, 성적우수자로 선정됐다.

“포장 비전공자인 제가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증을 취득한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우수한 성적까지 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 학생은 “앞으로 포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포장계를 이끌고 젊어질 젊은 인력이 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재, 골판지 포장 전문 수출포장회사의 공장에서 직접 포장을 하면서 ‘패키징(포장)’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됐다는 이기영 씨. 그는 ‘포장’이라는 것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그리고 종합과학인 것 같으며, 그래서 ‘포장산업’을 접했을 때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 마냥 새로운 기쁨과 흥미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기영 씨는 처음 포장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잠시 일하며, ‘포장기사’ 자격시험에 도전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는데다가 포장에 대한 전문 서적이나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1차 필기시험 통과 후 실기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는 제1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과정 중, 전

공 공부 뿐만 아니라 졸업작품 및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전공보다 깊은 매력을 느낀 ‘포장학’에 대한 공부가 더욱 즐거웠다고 말했다. 특히 (사)한국포장협회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과정의 탄탄한 교재와 매 주마다 제출하는 레포트 덕분에 더욱 즐겁고 수월하게 수료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씨는 향후 포장기술관리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규모도 더욱 커지고 이를 통해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영 씨는 “다른 포장인들도 포장기술관리사를 통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포장분야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을 보고 다양하게 응용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포장업계’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이기영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과정을 통해 ‘나도 포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포장산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누구보다도 ‘포장’에 대한 열정과 패기로 차세대 포장인력의 중심에 우뚝 설 포부를 피력한 이기영 씨는 포장산업계 모든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한다.

“포장인 여러분~ 저 좀 데려가세요. ^^ ☞

‘패키징’ 지속적인 홍보 필요



유혜진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1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90.9 점을 획득 우수수료자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학년 유혜진 씨는 “지류포장부터 포장법규까지 11주간의 통신교육기간은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재정리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병행한 통신교육 기간동안 시험기간과 통신교육 일정이 겹쳤던 두 주 동안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회상한 그녀는 11주간 꾸준히 레포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11주간 포장재료 및 분야별로 레포트를 제출하고 종합시험을 치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유혜진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교재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은 물론, 인터넷 강의형태로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또는 포장(패키징)에 대한 기본만이라도 다뤄주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졸업을 1년 앞둔 유혜진 학생은, 포장기술관리사 자격 획득뿐만 아니라 향후 포장관련 다

양한 자격을 취득해 최대한 전공을 살린 포장 전문인력이 될 계획이다.

‘패키징(포장)’이라는 분야는 일반 사람들이 듣고 떠올릴 때 매우 생소한 분야인 것이 현실. 그녀는 포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패키징’이 일반적인 학문으로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한다.

또한 여러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 또는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업계와 학계도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 및 해외에서처럼 패키징이라는 분야가 인정받고, 대중들에게 알려져 각광받는 분야가 되길 바란다는 그녀.

앞으로 그 중심에서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유혜진 씨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제13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문의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